

-INTRO: We need to solve!-

현재 3월 15일 자 M사 및 E사의 B형 예상 등급컷은 96입니다.

아직까지 B형에서 A형으로 유출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체감 등급컷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6평, 9평 혹은 수능은 **체감난이도보다 등급컷이 높은 현상**을 몸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부족한 점을

현역일 경우 이 자료들을 꼭 풀어보시길 바라며, N수생들도 추후 모의고사를 풀고 어느 점이 부족한지 분석하는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답률 1위인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해설을 실어놨고 '왜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3 3월 교육청 35번]

In one experiment researchers had people sit at computers and review two online articles describing opposing theories of learning. One article laid out an argument that “knowledge is objective” the other made the case that “knowledge is relative.” Each article was set up in the same way, with similar headings, and each had links to the other article, allowing a reader to jump quickly between the two to compare the theories. The researchers hypothesized that people who used the links would gain a richer understanding of the two theories and their differences than would people who read the pages sequentially, completing one before going on to the other. They were wrong. The test subjects who read the pages linearly actually scored considerably higher on a subsequent comprehension test than those who clicked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ges. _____, the researchers concluded.

- ① The links helped to organize information
- ② Using the links got in the way of learning
- ③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 ④ The more links, the higher level of popularity
- ⑤ The Web motivates people to read more articles

해석: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반대되는 학습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개의 온라인 기사를 살펴보도록 했다. 한 기사는 “지식은 객관적이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다른 기사는 “지식은 상대적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각각의 기사는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고, 각각에는 이론을 비교하기 위해 독자가 두 이론 사이를 빠르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반대편 기사로 연결해 주는 링크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링크를 이용한 사람들이 반대편 기사로 이동하기 전에 한 기사를 다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페이지를 읽은 사람들보다 두 이론과 그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들은 틀렸다. 단선적으로 페이지를 읽었던 피실험자들이 페이지 사이를 클릭하여 앞뒤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보다 이후 진단 평가에서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링크를 사용한 것이 학습을 방해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지었다.

- ① 링크는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② **링크를 사용한 것이 학습을 방해했다**
- ③ 지식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 ④ 링크가 많을수록 인기도의 정도는 높다
- ⑤ 온라인(인터넷)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사를 읽도록 유도한다

해설: 이 지문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2번 선택지의 ‘got in the way’의 뜻을 몰랐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령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 중에서도 got in the way를 제대로 알고 풀은 수험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3번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의 생각은 2번과 3번을 고민하다가 ‘태도는 처음부터 읽는 걸 뜻하겠지?’라고 3번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get out of my way!’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저리 가!라는 숙어적 의미고, 직역하자면 ‘내 길에서 나가!’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선택지도 **숙어적 표현이 아닌 직역을 하면** ‘링크를 사용한 것은 학습의 길 안에 들어섰다’, 즉 길을 막았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직역을 정확히 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숙어적 표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르실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물론 way를 방법으로 해석하고 ‘링크를 사용한 것이 학습의 방법 안에 들어서다’라고 해석했을 경우는 완전히 오역해버린 경우입니다...이런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물론 최선의 경우는 선택지 자체의 표현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평가원에서는 비유적인 선택지를 출제한 적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숙어를 응용한 선택지는 출제한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가령 weed out이라는 선택지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직역을 해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weed->잡초 out->제거하다. weed out->잡초를 제거하다->뿌리뽑다).물론 앞으로는 모릅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출제된 3월 교육청 문제 빈칸추론을 포함하여, 예년도 3월 교육청 및 일부 자작문항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빈칸 추론을 틀렸다면 정확히 치료하시고, 약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